

순천, 국제사회 생태도시 표준 제시

‘삶 속 정원’ 박람회장 도심 확대
웰니스 강화·무장에 정원 조성
시크릿가든·어싱길·그린광장 등
메타버스 미래도시 이정표 제시



한창 공사중인 국가정원 식물원(왼쪽)과 시크릿가든. /순천시 제공

오는 4월부터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를 총 지휘하고 있는 노관규 순천시장은 “웰니스와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시대,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줄 이정표가 필요한 때”라며 “순천은 2023정원박람회를 통해 미래 도시가 따라야 할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순천시가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2023정원박람회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펼쳐진다.

박람회장은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그리고 순천 도심 등 총 3개 권역으로 그 범위는 무려 193ha에 달한다.

총 사업비가 2,000억이 넘는 이번 박람회는 정부 승인과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의 공인을 받아 순천시와 전남도, 산림청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다.

2013년 정원박람회는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을 위한 에코벨트 구축에 목적을 뒀다면 이번 박람회는 정원문화를 전 세계와 향유해 앞으로 도시가 나아가야 할 표준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에 따라 마음과 건강의 해방구, 웰니스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으며 무장에 친환경원으로 꾸며 모두가 즐기는 열린정원을 지향했다.

또한 2013년 박람회(111ha)와 달리, ‘삶 속의 정원’을 모토로 박람회장을 도심까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유료권역이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113ha인 반면, 무료권역을 동천과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 및 경관정원 등

435ha로 늘렸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도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저류지를 시민들의 쉼과 소통의 공간으로 제공한 ‘오천그린광장’이다.

순천시는 시민들이 이곳에서 각종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공연 등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새로운 광장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평소 차량이 달리는 저류지 옆 동천 강변도로에 사계절 잔디를 식재해 단절된 저류지와 동천을 하나의 정원으로 연결하는 ‘그린아일랜드’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저류지 내 오천언덕과 야간경관, 바닥분수, 어싱길 등을 같이 만들어 1.2km에 달하는 전국 최대 마로니에 길이 탄생한다.

이는 도심 저류지를 시민의 공원으로 탈바꿈한 최초의 시도일 뿐 아니라, 서울시가 도로를 공원으로 바꾸는 도심 성형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순천시는 이미 그린아일랜드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전국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순천시는 여기에 더해 ‘국가정원 뱃길’을 조성함으로써 순천의 역사성을 구현하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동천을 관광 콘텐츠화 했다. 고려초 해룡산 해룡창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이 뱃길은 동천변의 화려한 경관과 맑은 공기, 바람을 느

끼며 낭만을 즐기는 생태문화 코스가 될 전망이다.

2.5km의 국가정원 뱃길을 따라 운영하는 ‘정원드림호’라는 배를 타면 순천역 인근 선착장에서 15분 만에 국가정원 내 호수정원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목되는 콘텐츠는 정원에서의 특별한 하룻밤 ‘가든스테이’다. 그동안 정원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였지만, 이번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의 순천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낭만과 힐링이 기대된다.

시는 또 이번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최신 건강 트렌드인 어싱(맨발 걷기)길을 도입했다.

자연을 감상하면서 쉼과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국가정원 과 오천그린광장, 그리고 순천만습지에 걸쳐 총 8개 코스, 12km에 달하는 어싱길을 조성했다.

이밖에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정원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국가정원식물원과 시크릿가든을 선보인다. 국가정원식물원은 순천의 산수를 표현한 입체적인 식물 전시공간으로 연출되며 시크릿가든은 태양광 채광기술을 활용한 지하정원 및 에너지정원을 구현할 예정이다. /순천=박경식 기자

“경청·직시·도약하는 의회”

2023 시혜 설계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충실

“화순군의회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지방의회의 권한은 더욱 커지고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성숙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이 최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 의장은 이를 위해 우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토끼의 뛰어난 청력처럼 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의회가 되고 자치분권의 활성화에 있어 그 중심은 항상 군민임을 명심하고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시하겠다’고 밝혔다.

토끼의 넓은 시야처럼 지역 구석구석을 살펴,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이 없도록 똑바로 살피고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며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 이럴 때 일수록 어두운 곳을 찾아 문제를 바로 보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논의하고 해결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의 문제를 직시함으로써 토끼의 뽀박질처럼 한 단계 발전한 의회로 거듭나고 특히, 2023년은



민선 8기의 주요 현안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면 서도,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협력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나해를 되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치열했던 것 같았다”며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 제9대 화순군의회가 개원했고, 10명의 의원을 모두 더 나은 화순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던 6개월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러한 시간을 지나, 2023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새해를 맞이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뜻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구례,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행정력 집중

깨끗·안전한 수돗물 공급 목표

구례군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정수장 정비, 지방상수도 확충,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을 추진한다.

26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구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추

진에 12억 원, 황천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7억 원, 산동면 하수처리구역 개선사업 3억 원 등 다양한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2017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264억 원 규모의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을 통해 노후관 정비(40.7km)와 누수탐사 및 정비(523km) 등을 추진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45개소, 13억 원)과 기술진단(7개소, 4억 원) 등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운영으로 수질 개선 등 수자원 보호에 앞장 설 예정이다. 또한, 쾌적한 정수시설 운영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30년이 경과된 노후 정수장을 통합 개량하여 구례통합정수장 신설을 추진했던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구례=손석봉 기자

피엠씨텍, ‘포스코MC머티리얼즈’로 사명 변경

피엠씨텍(대표이사 김동원)이 최근 포스코 MC머티리얼즈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포스코MC머티리얼즈는 재료, 소재를 뜻하는 ‘머티리얼즈(Materials)’라는 단어를 사명에 직접적으로 사용해 탄소소재 전문기업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또 ‘MC’는 변화를 향한 움직임(Move for Change), 주주사 존중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포스코MC머티리얼즈는 제철 부산물인 폴타르를 활용해 흑연전극봉과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원료인 침상코크스를 제조하는 친환경 소

재 메이커다. 2012년 설립 이후 전 세계 6개사만이 생산 가능한 프리미엄급 침상코크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으며, 산학연 연계를 통해 탄소소재 분야 전문성과 R&D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MC머티리얼즈는 글로벌 탄소중립에 따른 철강/모빌리티산업 패러다임 전환 전망에 따라 포스코그룹의 친환경미래소재비전과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침상코크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명을 바꿨다.

/순천=박경식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용산면 목촌마을, 이웃돕기 성금

장흥군 용산면 목촌마을 주민들이 최근 용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웃돕기 성금 152만원을 기탁했다.

이삼모 목촌마을이장은 “목촌마을 어르신들께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찜질돈을 직접 모았다”며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김성호 용산면장은 “매년 아름다운 이웃나눔을 실천해주는 목촌마을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복한 용산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장흥=이옥현 기자



광양경제청, 17개 복지시설 위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직원들이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 17개소를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여수, 순천, 광양에 있는 아동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4개소와 경로당 13개소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해 행정기획부장 등 직원들이 참여해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

들을 위로했다. 김중현 행정기획부장은 여수시에 있는 장애인시설 ‘여수농아원’과 아동시설 ‘삼혜원’을 방문해 시설종사자들에게 격려의 말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 개발부, 전략산업부 등 각 부서 직원들도 관내 13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각종 물품을 전달하고 온정을 나눴다. /우성진 기자



여수 시전동, 취약계층 후원금

여수시시전동통장협의회(회장 김용한)가 최근 시전동 통장 23명과 주민들이 성금 350여 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시전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으로 기탁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특화사업비로 쓰일 예정

이다. 박정순 29동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통장들과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했고 동참해 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대표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시전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